

# 부업(Dual-job)계층의 특징과 실태

최 효 미\*

## I. 들어가며

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조사명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가구의 소득활동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이 주된 설문내용이다.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사교육과 보육, 교육과 훈련, 부모부양, 근로시간, 실직과 이동, 은퇴 등 매우 다양한 연구에 패널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부한 일자리 정보에도 불구하고, 직업력 자료의 사용빈도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패널데이터의 사용에 익숙치 않은 유저들에게 직업력 데이터가 주는 구조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차수가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구 혹은 개인용 데이터와는 달리, 직업력 데이터는 1차년도 이후의 모든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KLIPS를 처음 접하는 유저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직업력 데이터는 개인용 데이터와는 달리 차수별로 변화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변수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쉽게 개인의 직업에 관한 특성들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용 데이터가 당해연도 주된 일자리에 관한 정보만을 수록하고 있다면, 직업력 데이터는 모든 일자리를 포괄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KLIPS의 직업력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의 일자리 이동, 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연구원(chm@kli.re.kr).

1) 개인용 데이터는 취업자용 설문과 미취업자용 설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과 주된 일자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력은 모든 차수의 모든 유형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용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이전년도 일자리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차수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의 특성, 생애 첫 일자리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본고는 KLIPS의 직업력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예로써, 부업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부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느 정도 부업이 행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II. 용어의 정의

흔히 한국에서 주된 일자리 이외에도 추가적인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가르켜 투잡(two-job)<sup>2)</sup>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투잡(two-job)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는 모호하다. 외국 논문들에서 two-job이라는 용어가 때로 2개의 일자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를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부분의 외국 논문들은 ‘2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르켜 dual job이나 multiple job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주업 외에 부업 그 자체는 second job, extra job, avocation, moonlighting이라고 하고, 부업을 가진 사람들은 moonlighter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어색한 단어이다.

한편 국어사전 등에는 투잡(two-job)이라는 용어 자체를 찾을 수 없으며, 국어사전에는 ‘부업 : 본업 이외에 따로 가지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업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부업이라는 말은 주부 등이 가사 이외의 소소한 소득을 얻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즉 ‘취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행동’이 부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부업을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반대로 주업을 “한 개인이 한 시점에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주업을 ‘부업을 가진 사람의 주된 일자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고는 부업의 상대어로 주

2) 인터넷 검색엔진 및 교보문고 등에서 투잡(부업) 혹은 dual job, multiple job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도하자,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투잡(부업)이라는 용어를 다른 나라의 서적에서는 dual job 혹은 multiple job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몇몇 문서에서는 부업을 ‘겉벌이’이라고 한 경우가 있었으나, 다소 생소한데다 ‘맞벌이’와 혼동이 예상되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업을 사용하였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부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라고 지목한 일자리<sup>3)</sup>를 주된 일자리라 하며, 주된 일자리가 아닌 부가적 일자리를 모두 두번째 일자리라고 정의한다.

본 분석을 위해 KLIPS의 직업력 데이터<sup>4)</sup>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현재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jobclass를 기준으로 유형 1, 유형 3, 유형 5, 유형 7<sup>5)</sup>만을 사용하였다.

### Ⅲ. 부업 현황 및 특징

이제부터 KLIPS에 나타난 부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제1항에서는 우선 부업의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제2항에서는 하나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하 주업계층<sup>6)</sup>)들과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하 부업계층<sup>6)</sup>)들의 특징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sup>7)</sup>

- 3)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개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일자리를 택하고, 그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인용 설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 4) KLIPS의 개인용 데이터가 조사 당해년도에 응답한 모든 개인의 취업자용 설문과 유형 설문 중 일부(주된 일자리인 유형설문)의 응답만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직업력 데이터는 모든 차수의 모든 유형 설문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KLIPS의 직업력 데이터에는 한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던 모든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직업력 자료의 구성과 활용에 관해서는 노동패널 홈페이지에 수록된 워킹페이퍼 중에서 「직업력 자료의 구성과 활용가능성」(황수경, 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KLIPS는 유형설문을 통해 각각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유형설문은 총 8개로 구성되는데, 유형 1~4번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를, 유형 5~8번은 새로 시작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짝수번 유형설문은 현재는 그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이며 홀수번 유형설문은 현재도 그 일자리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모두라 함은 유형 1, 3, 5, 7번이 될 것이다. 한편 유형 1, 2, 5, 6은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형 3, 4, 7, 8은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의미한다.
- 6) 매해 동시에 3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는데, 7차년도에는 동시에 5개의 일자리를 가진 응답자도 있었다.
- 7) KLIPS에서 유형 설문은 2차년도 조사부터 실시되었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조사하였고, 부업에 관한 매우 간단한 조사만이 실시되었다. 이에 본고는 2차년도 이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부업 현황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중은 2.6~1.8% 가량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유사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중 부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3년에 1.5%, 2004년에는 1.9%인 것으로 나타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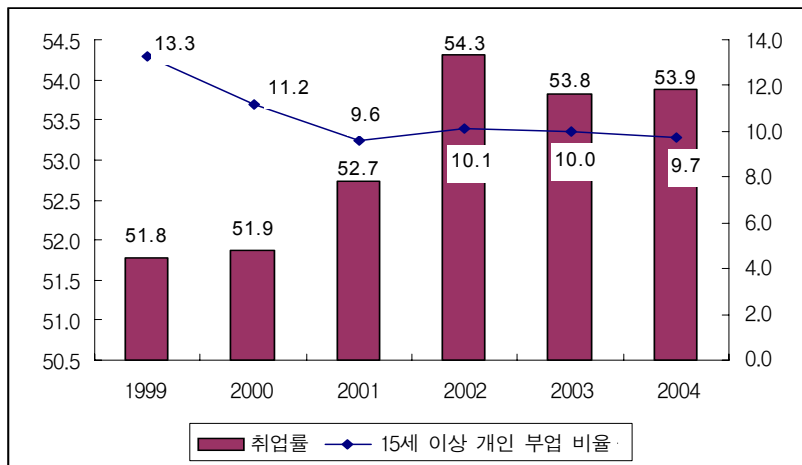
<표 1> 취업자 중 부업계층의 비중

(단위: 명, %)

	취업자수	주업		부업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999	6,233	6,073	97.4	160	2.6
2000	5,812	5,687	97.8	125	2.2
2001	5,828	5,722	98.2	106	1.8
2002	5,955	5,844	98.1	111	1.9
2003	6,211	6,096	98.1	115	1.9
2004	6,284	6,171	98.2	113	1.8

[그림 1] 취업률과 부업 비율

(단위: %, ‰)



주: 1) 취업률은 '(취업자수/15세 이상 개인수)\*100'을 의미함.

2) 15세 이상 개인 대비 부업 비율은 '(부업인 사람/15세 이상 개인수)\*1000'을 의미함.

8)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부업여부를 묻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또한 설문지 구조상 취업자만이 부업여부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고가 사용하는 부업과 의미상 매우 흡사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KLIPS와 유사한 패널데이터인 PSID(1976~1991년)를 이용한 미국의 부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업계층의 비중이 매해 2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CPS로 분석할 경우에는 부업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6%내외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sup> 그러나 CPS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부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2.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부업계층은 2000년에는 2.2%로 감소하고, 2001년 이후로는 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림 1]에 따르면, 취업률이 가장 낮았던 1999년에 부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부업의 비중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소득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 2. 부업계층의 특징

직장인 78.6%가 부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보도<sup>10)</sup>와는 달리,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업을 희망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항에서는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부업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은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부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업계층 중 30세 미만자는 17.9%에 달했으나, 부업계층 중에서는 2.7%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부업계층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은 17.7%로, 주업계층의 9.4%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업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연령층은 4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학력일수록 부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업 선택이 생계를 위한 소득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40~50대 연령층에 속한 저학력자의 경우 1개의 일자리만으로는 충분한

9) Christina H. Paxson, "The Dynamics of Dual Job Holding and Job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4, No.3(1996)에서 인용. PSID와 CPS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두 설문문의 내용차이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인터넷 취업포탈 잡링크가 직장인 1,3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였고, 본고는 연합뉴스에서 재인용하였다.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인적특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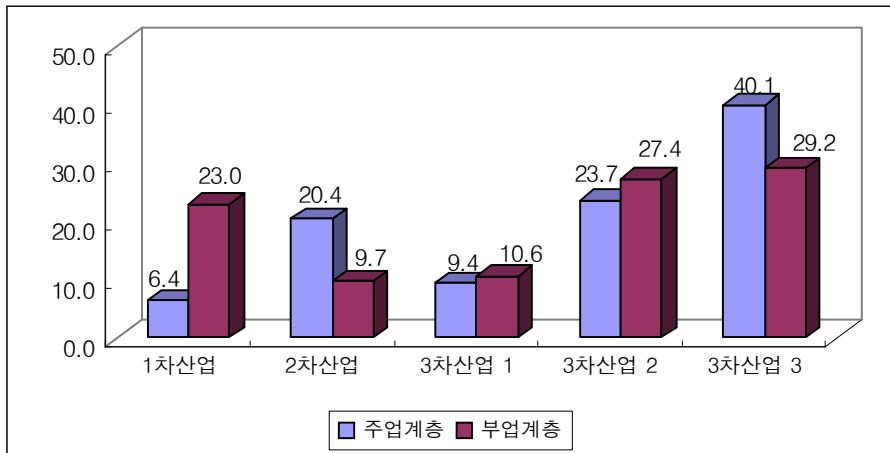
(단위: 명, %)

		주업계층		부업계층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 체		6,171	100.0	113	100.0
성별	남성	3,709	60.1	69	61.1
	여성	2,462	39.9	44	38.9
연령별	30세 미만	1,106	17.9	3	2.7
	30세 이상 40세 미만	1,734	28.1	18	15.9
	40세 이상 50세 미만	1,704	27.6	38	33.6
	50세 이상 60세 미만	1,046	17.0	34	30.1
	60세 이상	581	9.4	20	17.7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621	26.3	50	44.3
	고졸	2,265	36.7	37	32.7
	대졸 미만	932	15.1	9	8.0
	대졸	1,135	18.4	7	6.2
	대학원 재학 이상	216	3.5	10	8.9

주: 1) 7차년도 학술대회용 데이터 사용.  
 2) 대졸 미만에는 전문대졸이 포함.

〔그림 2〕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산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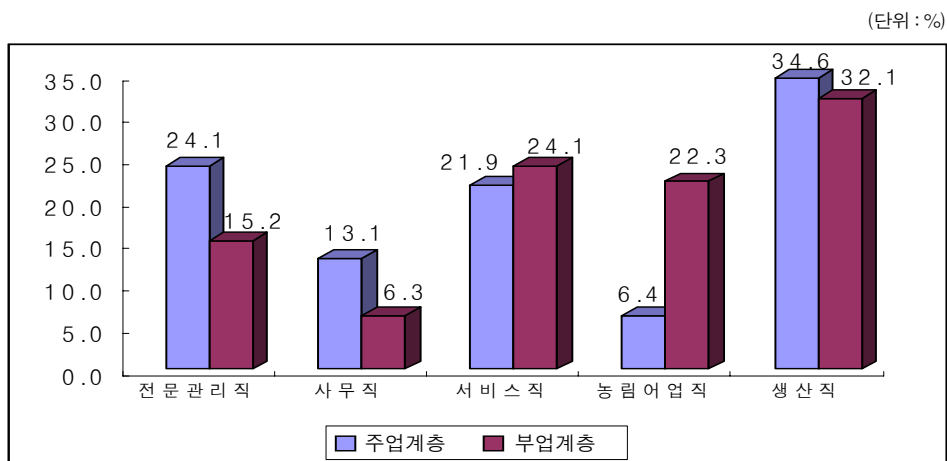
(단위: %)



주: 1) 1차산업은 농림어업, 2차산업은 광공업(제조업 포함), 3차산업\_1은 건설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 3차산업\_2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차산업\_3은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을 의미함.  
 2) 부업인 경우 주된 일자리의 산업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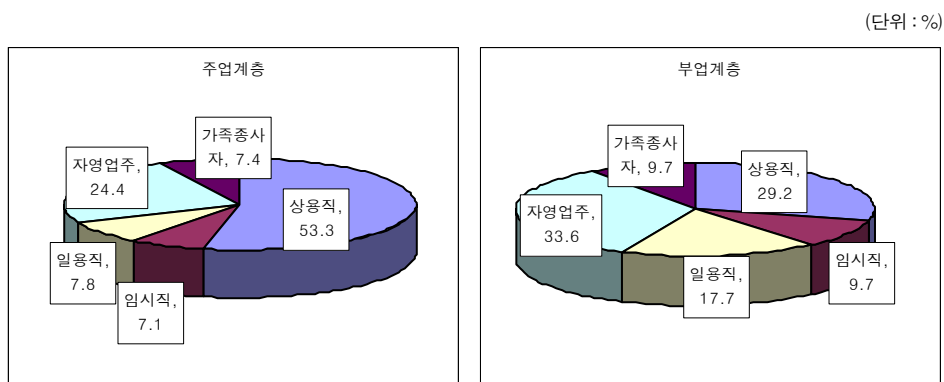
[그림 2]는 부업계층의 산업별 특징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부업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산업은 1차산업인 농림어업과 3차산업 중에서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이었다. 이들 산업은 대체로 높은 학력이나 고난이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산업으로, 농림어업이나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부업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부업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업계층과 마찬가지로 부업계층 또한 공공서비스업 등<sup>11)</sup>의 종사자 비중이 절대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중(29.2%)을 기

[그림 3]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직종별 비교



주: 부업계층의 경우 주된 일자리의 직종을 기준으로 함.

[그림 4]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주: 부업계층의 경우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함.

11)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을 의미한다.

록했다. 또 부업을 가진 사람들 중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인 경우는 상대적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업을 지닌 경우 자영업주<sup>12)</sup>일 가능성이 3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업계층의 경우에는 상용직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하나의 일자리에만 종사하는 비중이 높는데 반해, 자영업주 및 일용직 근로자는 부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암시한다.

한편 부업을 가진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표 3〉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주업계층	부업계층	
		주된 일자리	모든 일자리
월평균 임금	175.8	135.6	184.1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6	43.1	67.8

〈표 4〉 일자리 특성별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비중

(단위: 명, %)

		주업계층	부업계층	전 체
산업별	1차산업	93.7	6.3	100.0
	2차산업	99.1	0.9	100.0
	3차산업_1	97.9	2.1	100.0
	3차산업_2	97.9	2.1	100.0
	3차산업_3	98.7	1.3	100.0
직종별	전문관리직	98.9	1.1	100.0
	사무직	99.1	0.9	100.0
	서비스직	98.0	2.0	100.0
	농림어업직	94.0	6.0	100.0
	생산직	98.3	1.7	100.0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90.0	1.0	100.0
	임시직	97.5	2.5	100.0
	일용직	96.0	4.0	100.0
	자영업주	97.5	2.5	100.0
	무급가족종사자	97.6	2.4	100.0

주: 1) 1차산업은 농림어업, 2차산업은 광공업(제조업 포함), 3차산업\_1은 건설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 3차산업\_2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차산업\_3은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을 의미함.  
2) 부업인 경우 주된 일자리의 산업을 기준으로 함.

12) 자영업주란 고용주+자영업자를 말한다.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부업계층의 모든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을 합한 평균 총근로시간은 주당 67.8시간으로 주업계층에 비해서 15.2시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가진 사람들의 월평균 총임금은 184만 1천원으로 주업만 가진 사람들에 비해 8만 3천원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부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는 월평균 임금은 135만 6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특성별로 주업계층과 부업계층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단연 농림어업 분야가 부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 중 각각 1.1%와 0.9%만이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도 상용직의 경우가 부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업 선택이 추가적 소득을 위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 3. 두번째 일자리의 특징

이 항에서는 부업계층의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표 5>에 따르면 두번째 일자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4.7시간이었으며 평균임금은 53만 6천원이었다. 또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자영업주가 두번째 일자리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일자리에서의 임금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업계층의 주된 일자리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두번째 일자리는 농림어업인 경우가 46.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직종별로도 주된 일자리는 생산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두번째 일자리는 농림어업적인 경우가 47.8%에 달했다. 또한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산업이 다른 경우가 57.5%, 직종이 다른 경우는 6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가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업 선택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는 임금근로자이고 두번째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가 27.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가 모두 비임금근로자인 경우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두번째 일자리로 갖는 경우는 6.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두번째 일자리로 비임금근로가 선호되는 이유는 비임금근로가 임금근로에 비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두 번째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만원, 시간)

	전 체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월평균 임금	53.6	47.6	64.7
주당 평균 근로시간	24.7	22.9	28.7

주: 자영업주는 '고용주+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함.

〈표 6〉 부업의 산업별·직종별 특징

〈표 7〉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단위: %)

		주된 일자리	두번째 일자리
산업별	농림어업	23.0	46.4
	광공업	9.7	5.4
	건설업	10.6	3.6
	도소매음식숙박업	27.4	18.8
	운수통신업	3.5	0.9
	그외서비스업	25.7	25.0
직종별	전문관리직	15.2	19.8
	사무직	6.3	8.1
	서비스직	24.1	15.3
	농림어업	22.3	47.8
	생산직	32.1	9.0

		주된 일자리 - 두번째 일자리	비 중
변화없음	임금-임금		16.8
	비임금-비임금		25.7
	무급가족-무급가족		6.2
	전 체		48.7
변화함	임금-비임금		27.4
	임금-무급가족		12.4
	비임금-임금		6.2
	비임금-무급가족		1.8
	무급-임금		1.8
	무급-비임금		1.8
전 체			51.4

#### IV. 맺음말

지금까지 KLIPS의 직업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업계층의 비중은 연도별로 2.6~1.8%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취업률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업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는 부업계층의 뚜렷한 증가는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부업계층의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주업계층에 비해 고령자와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일자리 특성별로는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 농림어업이나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일자리가 일용직이거나


자영업주일 때 부업 선택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업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로시간은 43.1시간으로 주업계층에 비해 짧았으나, 모든 일자리<sup>13)</sup>의 근로시간을 합한 평균 총근로시간은 주업계층에 비해 15.2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부업계층의 모든 일자리의 월평균 총임금도 주업계층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다.

다섯째, 부업계층의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는 산업과 직종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산업이 다른 경우는 57.5%였고, 직종이 다른 경우는 65.2%에 달했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업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주된 자리로 임금근로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비임금근로를 하는 경우가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주된 일자리와 두번째 일자리가 모두 비임금근로자인 경우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번째 일자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비임금근로가 보다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부업과 실제로 부업을 갖게 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부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직무상 장점을 이용한 일자리(예를 들어, 전문프리랜서 등)를 희망했다. 그러나 KLIPS를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두번째 일자리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업 선택이 불안한 고용상태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13) 주된 일자리+두번째 일자리를 의미하며, 7차년도 최대 5개의 일자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개인도 있었다.